

# 공공신학으로 조망한 칼빈의 난민신학 -이주성, 환대성, 초국적성, 그리고 교회연대성의 국제운동\*

**Calvin's Refugee Theology Viewed through the Lens of Public Theology:  
Migration, Hospitality, Transnationality, and the International Movement  
of Church Solidarity**

이봉근 (Bong-geun Lee)\*\*

## ABSTRACT

This study redefines the 16th-century Reformation as a massive “movement of refugees,” illuminating John Calvin’s ministry as “Refugee Theology” through the lens of public theology. Utilizing Heiko A. Oberman’s concept of *Europa Afflicta* as an analytical framework,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Calvin perceived Christians as “rootless sojourners” (*peregrinis sine radicibus*) and the church as “churches under the cross” (*ecclesiis sub cruce*).

The research focuses on two historical contexts. First, in Geneva, Calvin welcomed thousands fleeing persecution, establishing welfare systems like the General Hospital and the *Bourse française* to support them not as aid recipients but as bearers of the *Imago Dei*. Second, the study explores the 1555 mission to “Antarctic France” in Brazil. Through the tragic history of Huguenots at Fort Coligny, it establishes that Calvin’s theology was a “transnational ecumenical movement” extending to the New World.

In conclusion, this paper draws public theological implications from Calvin’s spirit of hospitality and justice for the contemporary church facing global refugee crises. For Calvin, caring for refugees was a theological imperative and political responsibility. This historical model offers a vital paradigm for overcoming modern xenophobia and building the body of Christ.

**Key words:** John Calvin, refugee theology, public theology, *Europa Afflicta*, hospitality

\* 2026년 5월 13일 접수, 6월 2일 게재확정

\*\* 칼빈대학교(Calvin University) 신학과 조교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84, bgleekr@calvin.ac.kr

## I. 들어가는 말

재론의 여지없이 이민은 초기 종교개혁의 특징을 규정하는 요소였다(Holt, 2020: 375-382).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정치적 박해를 피해 도망치거나, 종교적 자유를 찾거나, 선교사를 보내거나, 난민을 맞이하는 등 끊임없이 기동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항상 다른 언어와 문화와 상호작용하며 국경을 넘고, 새로운 땅에 교회를 세우며, 성경이 요구하는 외국인에 대한 ‘정의와 환대’(justice and hospitality)의 문제와 씨름했다. 존 칼빈의 도시 제네바는 신앙 공동체가 새로운 사람들(new comers)에게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도 ‘외국인 혐오’(xenophobia)와 ‘자기민족 보호주의’(ethno-centricism)의 유혹에 저항하는 대단히 흥미로운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다.

제네바는 난민의 유입과 선교적 파송이라는 이주의 양면성(double-sidedness)을 모두 체득하고 있었다. 이 도시는 유럽전역의 다양한 문화와 각 왕국에서 온 수천 명의 난민들을 수용했을 뿐 아니라, 정착민, 선교사들, 목회자들을 유럽대륙과 그 너머로 파송하기도 했다. 특히 칼빈의 지도 아래 제네바는 프랑스 선교에 깊이 관여했으며, 제네바에서 교육받은 많은 목회자들이 프랑스로 귀환해 위그노 교회에서 사역했다(Maag, 1995). 루터란 사가 카터 린드버그(Carter Lindberg)는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제네바는 난민을 환영했을 뿐만 아니라 난민을 만들어 냈다.”(Geneva not only welcomed refugees, it created them.)(Lindberg, 2010: 249-250).

초기 종교개혁자들의 이주의 경험은 개혁운동의 자기 이해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들이 겪은(경험했던) 이러한 깊은 격변에 대한 영적이고 정치적인 반응은 21세기 기독교인들이 현대(그리고 지속적인) 이민 문제를 다루는데 많은 교훈을 제공한다. 존 칼빈 자신도 프랑스의 정치적 망명자요 난민으로서 스트라스부르(Strasbourg)로 피신한 후 제네바에 정착하여 유럽 전역에서 박해를 피해 이주해 온 개신교 난민들을 위한 피난처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특별한 교회 질서를 세웠다. 칼빈은 자신의 생애 내내 박해받는 개신교도, 특히 모국 “프랑스(위그노)”<sup>1</sup> 출신의 개신교도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역했다. 칼빈은 제네바와 다른 유럽 지역의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도시’(cité céleste)로의 지극히 위험한 여정을 떠나기로 한 “뿌리 없는 나그네들에게”(peregrinis sine radicibus, aux voyageurs sans racines),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교회들에게”(ecclesiis sub cruce, aux églises sous la croix)(Calvin, 1863-1900: 36: 102-103) 이야기한 것이다.

1) 정체성도 그랬다. 위그노의 정체성은 단순한 국적이 아니라 법적 지위와 기억의 함수였으며, ‘칼빈주의 신앙’이라는 종교적 정체성과 국경 이동에 따른 ‘외국 개신교 이주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었다(Lechenicht, 2007: 309-331).

1545년에서 1555년 사이 프랑스에서의 박해는 제네바로 대규모의 난민 유입을 초래했다. 이 시기 제네바의 좁은 지리적 경계와 제한된 자원은 시민들이 모든 난민들을 영구히 환대하는 것을 막았다. 공간의 부족과 전세계적 선교에 대한 열정이 결합되어 결국 유럽과 그 너머에서 여러 개신교 재정착 선교를 촉발시켰다.

이 모든 과정에서 칼빈과 그의 동료개혁자들은 ‘이주성’(migratory)과 ‘환대성’(hospitality), ‘초국적성’(transnationality)과 ‘교회연합성’(ecumenicity)을 동시에 가진 다양하고 복잡한 국제운동을 육성했다(Maag, 1995). 16세기 제네바에서 지속적으로 선포된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대단히 간단했다. 즉, “당신이 특별한 위치에 있을 때 환대를 베풀라, 머지않아 당신도 환대가 필요한 이주민(난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미국에서는 자칭 복음주의적 칼빈주의자들은(self-identified Calvinists) 반이민(경계선상의 인종차별주의자) 지도자들과 잔인한 이민정책을 흔쾌히 지지(침묵, 외면, 공모)했다.<sup>2</sup>

본고는 ‘보수 복음주의적 칼빈주의자’들의 도덕적·정치적 침묵주의는 낯선 이를 환대하고 폭군에 저항하며, 정의를 세우고, 취약함과 신앙으로 국경과 문화를 넘나드는 오랜 칼빈주의 전통에 대한 비극적인 배신임을 시사한다. 또한 칼빈이 법치주의에 집착하는 차가운 바리새적인 인물이라는 일반적인 오해를 불식시키며, 대신 그를 제네바의 모든 주민이 돌봄 공동체에 통합될 수 있도록 교회와 시민정책을 마련한 인문주의 개혁가로서 더 정확하게 재조명 했다(Chalamet, 2013: 289-308). 당시 칼빈에 의한 교회 주도의 사역들은 현대의 사회복지 네트워크와 달리 진정한 돌봄 네트워크로 설계되었다(Kingdon, 1993: 665-673).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가 채택한 ‘공공신학’(Public Theology)적 방법론은 교회를 사적인 영적 영역에 가두지 않고, 당대의 사회적·정치적 위기-특히 전 지구적 난민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과 사회적 책임을 모색하는 실천적 신학 담론을 의미한다. 현대 유럽과 미국의 극우적 반이민 정책이 때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방관되거나 정당화되는 현실 속에서, 칼빈의 난민 사역은 단순한 과거의 교회사적 기술(記述)을 넘어 오늘날 교회가 지녀야 할 공적 책임의 강력한 신학적 전거(historical paradigm)가 된다.

2) 2020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국경 집행 정책은 사실상 ‘강제수용소’로 비판받는 이민자 구금시설을 확장하였다. 이 시설들은 무고한 생명을 위협하고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였으며, 특히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취약한 수감자들을 간수들에 의한 육체적·성적 학대 위협에 노출시켰다(Pompa, 2019; Gonzales, 2019; ACLU, 2024).

## II. 칼빈의 신학적 지평: ‘고통당하는 유럽’과 ‘난민들의 종교개혁’<sup>3</sup>

제네바와 브라질에서 전개된 칼빈의 난민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칼빈이 당시 유럽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델란드 위트레흐트(Utrecht) 출신의 에리조나 대학교(UA)의 저명한 교회사학자 헤이코 오버만(Heiko A. Oberman)은 칼빈을 단순한 ‘도시 종교개혁자’가 아닌, “난민들의 종교개혁”을 이끈 인물로 재평가하며, 그의 시각이 “고통당하는 유럽”(Europa Afflicta)에 맞닿아 있었음을 지적한다(Oberman, 1992: 91-111).

오버만은 칼빈이 주도한 ‘제2세대 종교개혁’이 기존의 도시 종교개혁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전면적 종교개혁”(total Reformation)이었음을 강조하며, 이를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첫째, 칼빈은 통상적인 의미의 ‘도시 종교개혁자’에 머물지 않았다. 칼빈에게 유럽은 붕괴 위기에 처한 영적 전장이었다. 오버만의 분석에 따르면, 칼빈은 제네바에 주둔한 ‘병사’(soldier)인 동시에 유럽 전체 전선을 지휘하는 ‘장교’(officer)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유럽 대륙과 영국 제도를 ‘우리의 세계’(noster orbis)”(Calvin, 1863-1900: 36:399B)로 간주했으며, 그 안에서 “기독교가 붕괴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Calvin, 1863-1900: 36:178A)고 진단했다. 이는 단순한 비판론이 아니라, 당시 박해받던 개신교도들의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었다. 칼빈이 1549년 “유럽이 고통당하고 있다”(afflicta est Europa)고 선언했을 때, 이는 중세 암흑기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동시대 박해받는 형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대의 표명이었다.

둘째, 칼빈은 특정 교구나 지역, 혹은 국가의 경계에 갇히지 않았다. 칼빈은 자신을 제네바라는 한 도시의 목회자로 국한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유럽 전역에 흩어진 “뿌리 없는 나그네들”(peregrinis sine radicibus)과 “십자가 아래 있는 교회들”(ecclesiis sub cruce)(Calvin, 1863-1900: 36:102-103)을 이끄는 지도자로 인식했다. 이러한 범유럽적(pan-European) 시각은 칼빈이 제네바의 전통적인 정치적 목표였던 ‘공공선’(bonum commune)을 넘어, 영적 차원의 ‘공동의 구원’(salus communis)(Calvin, 1863-1900: 32:629A)을 추구하게 된 결정적 배경이 된다. 그는 제네바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도 영적인 의미에서 스스로를 ‘난민’(Refugee)으로 여기며 살아가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선 ‘보편적 교회’(catholicity)의 회복을 의미했다.

3) 본고의 소재물은 교회사학자 오버만(Heiko A. Oberman)이 제시한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 그는 칼빈의 사역을 제네바라는 한 도시에 국한된 ‘도시 종교개혁’(City Reformation)이 아닌, 유럽 전역에서 박해받는 “뿌리 없는 나그네들”을 위한 ‘난민들의 종교개혁’(Reformation of the Refugees)으로 재정의했다. 여기서 ‘고통당하는 유럽’(Europa Afflicta)은 칼빈이 당시 유럽을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영적 전장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핵심 기제로서, 본고 칼빈의 신학을 공공신학적 난민 신학으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이론적 토대가 된다(Oberman, 1992: 91-111).

셋째, 칼빈의 개혁은 사회적 관습과 문화를 포함한 삶의 전 영역을 향했다.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재단사가 아니었다”(Calvin, 1863-1900: 49:681C)라고 일갈한 바 있다. 이 투박한 비유는 당시 ‘피난민’(refugees)으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화려한 복식과 사치에 몰두하던 제네바의 도시 엘리트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칼빈에게 있어 난민의 삶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순례’임을 자각하고 검소와 절제를 통해 ‘하늘 시민권’을 지향하는 삶이었다. 따라서 그의 난민 신학은 단순한 구호 활동을 넘어, 성도들의 ‘삶의 양식’(lifestyle) 자체를 개혁하려는 목회적 시도였다.

결국 칼빈의 교회론은 특정 지역의 ‘시민 공동체’(civil community)와 구별되는, 박해 속에 ‘모이는 교회’(gathered church)를 지향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corpus Christi)은 정치적 공동체(corpus politicum)와는 다르다”(Calvin, 1863-1900: 49:501A/B)고 강조하며, 제네바의 모든 거주민이 영원한 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적 정체성을 가질 것을 역설했다. 이러한 “고통당하는 유럽”에 대한 칼빈의 인식이 바로 제네바를 넘어 브라질(남극 프랑스)로 이어지는 난민 환대와 선교운동의 신학적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오버만의 분석은 본 연구가 지향하는 공공신학적 방법론의 토대가 된다. 칼빈에게 있어 종교개혁은 개인의 영혼 구원에 머무는 ‘사적 경건’(private piety)의 차원을 넘어, 박해받는 난민들의 생존권과 이동권을 옹호하고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선 ‘공적 정의’(public justice)와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를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즉, ‘고통당하는 유럽’이라는 현실 인식은 교회가 세상의 고통에 어떻게 공적으로 응답해야 하는지를 묻는 공공신학적 질문의 출발점이다.

### III. 난민들이 제네바로 모이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하던 시기(1536-1564)에 종교개혁은 그 자체의 생존을 위해 쟁투(爭鬪)를 벌이고 있었다. 개혁운동은 유럽 전역에서 가톨릭의 박해에 직면하고 있었다. 1536년 박해를 피해 도망친 프랑스의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제네바로 몰려들었다. 미국의 위스콘신-메디슨 대학(Wisconsin-Madison)의 칼빈과 제네바 사회의 관계를 미시사적 방법론(micro-historical)으로 분석한 로버트 킹던(Robert M. Kingdon)의 추정에 의하면, 단 10년 만에 제네바의 인구가 13,100명에서 최대 21,400명으로 증가했다(Kingdon, 1982: 223-224).

재론의 여지 없이 이처럼 몰려드는 난민들은 이미 한계에 달한 도시의 사회복지 인프라를 더욱 악화시켰다. 평상시에는 제네바의 원주민 인구 중 5%(500명)가 구빈원(General Hospital)으로부터 정기적인 지원을 받았다. 여기에 대규모 난민들이 유입되면서 사회복지 기관들은 1년 동안 최대 1만 명의 외부인들을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황에 봉착했다(Naphy, 2011: 114-116).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난민들 모두가 제네바라는 작은 도시에 영구적으로 정주하지는 않았다. 많은 이들이 다른 개혁과 정착지로 가기 위해 단순히 이곳을 경유해 간 덕분에 도시의 부담은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미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유입되는 난민들을 위해 새로운 터전을 찾아 신속히 이주시켜야만 하는 현실적인 시급성은 여전했다. 이러한 절박한 재정착의 과제는 역설적이게도 후일 제네바가 외부 세계로 눈을 돌려 선교 활동을 확장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선교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통로가 되었다.

칼빈과 제네바 토착민들 사이의 부단한 마찰을 일으킨 원인 중 하나는 망명자들에게는 반드시 환대를 제공해야만 한다는 칼빈의 영적, 정치적 주장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1523년에는 소수였던 이주가 30년 이후에는 대규모로 변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개신교 난민들은 칼빈의 설교와 그가 주도한 환대적 시민 개혁에 매료되어 제네바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17세기 칼빈주의적 네덜란드인들의 이주와 혁신 사례(Schilling, 1983: 7-33)와도 궤를 같이한다. 1555년까지 도시 제네바는 토착시민들보다 이민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면서 당연히 토착시민들의 불만도 커져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난민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자원을 고갈시키며 망명해온 프랑스의 부유한 귀족들이 도시를 장악하고 제네바의 문화가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제네바 자체가 쇠퇴할 것이라고 불평했다. 그러나 분명 토착 제네바 시민들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들의 분노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세기 중반까지 제네바의 모든 지역목회자들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다. 제네바 시민들이 몇 년 전 도시의 독립을 주장하며 자신들을 지역귀족들로부터 해방시켰으나 이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 경제문제에 있어서 과도한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다고 불평했다(Innes, 1983: 205-236).

반(反)이민정서는 1551년 이미 아미 패랭(ami Perrin, 1500년경-1561)이라는 이른바 리베르팡(Libertines)의 수장의 지도 아래서 절정에 달했다. 제네바의 토착 엘리트였던 그는 또한 반(反)칼빈적 정서를 지닌 사람으로서 칼빈의 정적이기도 했다. 아미 패랭은 자신을 제네바의 애국자라고 칭하면서 외국 소유의 사업체들을 위협하도록 거리의 폭도들을 선동하기도 했다(Naphy, 1995: 87-97; Paquin, 2000: 91-113). 거리의 폭도들은 시의회를 둘러싸고 위정자들을 위협하기 위해 결집했다.

칼빈도 직접 이러한 난장판에 뛰어들었다. 칼빈은 “프랑스인을 죽여라!”라고 외치는 분노한 군중 사이에 서서 자신도 역시 프랑스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피를 흘려야 한다면 내 피부터 흘려라!”(si du sang doit conler, que ce soit le mien!)(Lindberg, 2010: 251-252 ; Naphy, 1995 ; Paquin, 2000 참조). 아미 패랭은 이후 칼빈을 무력으로 축출하려고 했으나 패배하고 도시 제네바에서 추방되었다. 칼빈은 공적인 승리는 그가 목사로서의 권위를 강화하고 정치적 지지를 통해 난민들의 필요를 더 잘 돌보게 하는 튼실한 기반을 지니게 되었다(Gordon, 1996: 64-81). 사실상 아미 패랭을 중심으로 한 리베르탕의 패배는 억압의 승리가 아니라 제네바 종교개혁의 제도적 공고화(consolidation)였다(Benedict, 2011: 94-113).

프랑스 기금(Bourse français)은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 도망하는 프랑스 개신교도들에게 자선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제네바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칼빈은 오랜 세월 자신의 뻘뻘한 수입에서 각출한 돈으로 프랑스 기금 활동을 조용히 지원했다. 제네바의 목사회도 동참했다. 긴급구호와 의료 서비스 외에도 집사들은 이 기금을 사용해 난민 가정에 주거를 제공하고, 난민들이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왔다. 기금은 난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종자돈의 역할을 했으며 난민들이 정기적으로 자선에 의존하지 않도록 직업훈련비도 지원했다. 초창기에는 어떤 나라에서 왔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난민들은 프랑스 기금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박해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폴란드 등 여러 민족 공동체가 제네바에서 자신들의 기금을 마련해 난민들을 지원했다(Mottu-Weber, 1987).

종교개혁의 다국적인 성격은 제네바에서의 집사직의 사회적, 경제적 실천에 대한 칼빈의 헌신을 뒷받침 했다. 유사한 세계시민적(cosmopolitan) 성격은 제네바 아카데미 설립에도 구현되었다. 이 국제적 학교는 유럽과 이후 세계의 다양한 국가와 문화에서 초기 개신교 공동체를 섬길 목회자들과 학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계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이고 이주적인 종교개혁의 맥락에서, 칼빈이 교회 질서와 국경을 초월한 교회간 교류에 대하여 제시한 비전이 오늘날 우리가 이른바 ‘지역주의’(localism)와 ‘다문화적 관용’(multi-cultural tolerance)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를 어느 정도 드러낸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로마 가톨릭의 상명하달식 보편주의(top-down universalism)와 달리 칼빈은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각기 고유한 신앙고백을 지닌 다양한 회중들을 교회의 네트워크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Olson, 1989 ; Naphy, 2003: 101-143 ; Kingdon, 1991: 33-39).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이고 다문화적인 네트워크는 상호 지원적이고 상호 교정적(mutually correcting)인 관계를 지향했으며 공통된 교류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다양성이 허용되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였다.

#### IV. 영적이고 세상적인 동정심의 신학

칼빈은 그의 저작 『기독교강요』에서 하나님께서 “인류가 인간들 사이에서 유지되도록” 정부를 세우셨다고 주장했다(Calvin, 1960: IV.20.3). 칼빈은 통치자를 공적 복지의 신성하게 임명한 보호자이자 수호자로 보았다. 통치자의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에서 가장 신성하고 명예로운 소명”이라고 불렀다(Calvin, 1960: IV.20.6).

이러한 관점에서 세상 정부는 “하나님의 외적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며, 경건의 건전한 교리를 수호하고, 교회의 위치를 방어하며, 우리의 삶을 인간사회에 맞추고, 우리의 사회적 행동을 시민적 의로움(정의)에 맞추며, 우리를 서로 화해시키고, 일반적인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Calvin, 1960: IV.20.1-2).

주지하는 바와 같이 칼빈에게는 선호하는 정부형태가 존재한다. 칼빈은 영적(교회) 정부와 세속적(국가) 정부 사이에 역할 분담이 있다고 믿었지만, 세속(세상) 정부의 시민적 정의와 외적 도덕의 확립이 그리스도의 영적이고 내적인 왕국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연원(淵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이 둘은 서로 상충되지 않음을 천명했다. 영적 정부는 사실 지상에서 천국의 시작을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가고 있으며 이 덧없고 일시적인 삶 속에서 불멸하고 부패하지 않는 축복을 미리 보여준다(Calvin, 1960: IV.20.2).

칼빈의 교회론에서 ‘보이는 교회’(Visible Church)는 말씀 선포와 성례의 거행뿐 아니라,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한 구체적인 ‘돌봄의 정치’(politics of care)가 실현되는 공간이어야 했다. 이는 제네바에서는 ‘프랑스 기금’을 통한 환대의 시스템으로, 브라질에서는 박해를 피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피난처 건설’로 구체화 되었다. 즉, 제네바의 ‘수용’(Inflow)과 브라질로의 ‘파송’(Outflow)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공적 영역에서 가시화한다’는 칼빈의 일관된 교회론적 실천이었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교회도 국가도 완전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대표하지 않으며 둘 다 성도와 죄인, ‘선택된 자’(electi)와 ‘유기된 자’(hypocritae)가 ‘혼합된 사회’(Corpus permixtum)이기 때문에 영적·세속적 통치 모두에 내재된 모호함과 긴장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Calvin, 1960: IV.1.7-8, 12).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파했다. “우리는 가능한 한 강력하게 악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 명령은 왕, 통치자들, 사법관계자들 뿐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도 주어진 것이다.”(Calvin, 1992: 419).

제네바의 이민자들에 대한 저항은 칼빈의 사역 동안 계속되었고,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1559년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이민자의 아들이 200명으로 구성된 의회의 의자에 앉는 것이 허용되었

고 칼빈이 죽은지 약 35년이 지난 1594년에야 이민자의 아들의 실질적인 정치권력을 지닌 ‘소의회’(Small Council)에 들어갔다(Watt et al., 2000).

칼빈은 단순한 기독교적 의무를 근거로 신학적, 정치적으로 반이민 정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는 히브리서 13장 2절의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구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그는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던 접대의 권리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영접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향에서 난민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의무를 더욱 권장하기 위해 그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영접한다고 생각했지만 때때로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말한다. 나는 그가 아브라함과 뜻을 생각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 누군가 이것이 드문 일이었다고 반박한다면, 나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그분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때 단지 천사뿐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대접하는 것이다(Calvin, 1994: 204-205).

칼빈은 ‘환대’와 ‘공동체 연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들을 고난받는 지체들처럼, 곧 우리의 살과 같은 이들로 받아드려야 한다.”(Nous devons ouvrir nos bras à ceux que le Christ nous envoie, comme à nos membres souffrants, car ils sont de notre chair.)(Calvin, 1926-1962: 2:722). 칼빈은 망명자들을 ‘타자’(étranger)나 ‘외부인’(forain)이 아니라 ‘자신의 지체’(nos membres)로 간주했다. 이는 ‘환대’(hospitalité)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교회의 연합’을 나타낸다는 그의 신학적 실천의 행위였다.

또한 칼빈은 순례자로서의 자기 인식이 선명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이며, 언제나 우리의 진정한 하늘 본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Nous sommes pèlerins sur cette terre, et nous devons toujours avoir les yeux tournés vers notre vraie patrie céleste.)(Calvin, 1926-1962: 1:68). 칼빈은 신자들이 지상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 시민권’(civitas caelestis)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임을 강조했다며 망명은 이 ‘순례적 삶’-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순례이다(vie est un pèlerinage sur la terre)-의 현실적 표현이었다.

그리고 칼빈은 교회의 초국적 연합에 대해 강조했다.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왕국들의 국경에 묶여있지 않고, 동일한 신앙과 사랑으로 세계 도처에 퍼져 있습니다.”(La véritable Église de Christ n’est pas liée aux frontières des royaumes, mais s’étend dans le monde entier, unie par une même foi et une même charité)(Calvin, 1926-1962: 4:449).

칼빈은 교회의 보편성(catholicity)을 망명 현실 속에서 실재적으로 이해했다. 난민들은 새로운 지역 교회에 소속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의 교회를 구성했다. 요컨대 칼빈의 난민신학은 “순례자 의식,” “선민으로서의 환대,” 그리고 “초국적 교회 연합”이라는 세 개의 기둥 위에 정초되어 있었던 것이다.

## V. 난민들이 남극 프랑스로 흩어지다

유럽의 신대륙 정부와 식민화 이야기를 할 때 특정한 서사가 계속해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청교도들이 뉴잉글랜드에 최초로 정착했다는 주장이나 라틴 아메리카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 독점적으로 정착되었다는 주장들이다. 그러나 현재의 리우 데 자네이로(Rio de Janeiro) 외곽에 있던 개신교 정착지인 콜리니 요새(Fort Coligny)의 짧은 역사는 이러한 통념에 도전한다. 콜리니 요새는 초기 종교개혁의 이주적 성격, 비전, 그리고 그 성격을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를 제공한다.

제네바가 브라질에 목회자를 파송한 것은 단순한 이민자 돌봄을 넘어선 교회론적 확장이었다. 그들은 신대륙이라는 이교적(pagan) 공적 공간에 제네바의 예배 모범과 치리(discipline)가 작동하는 ‘참된 교회’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자 했다. 따라서 콜리니 요새에서의 성찬식 거행과 이후의 순교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우상숭배에 저항하고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가장 치열한 공공신학적 ‘증언’(witness)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555년 제네바 목사회는 신세계(New World)를 향한 첫 번째 개신교 선교를 결의했다. 이는 영어권 개신교도들이 뉴잉글랜드의 플리머스(Plymouth)에 정착하기 60여 년 전의 일로, 제네바는 13인의 위그노 난민들과 피에르 리시에(Pierre Richier, 1506-1580)<sup>4</sup> 목사를 당시 ‘남극 프랑스’(Antarctic France)로 불리던 브라질로 파송했다. 그 목적은 원주민들에게 구원의 지식을 전하기 위함이었다(Léry, 1994: 109-110). 리시에 목사는 1557년 3월 21일, 제네바 예배모범에 따라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이것이 바로 신세계에서 최초로 거행된 개혁파(제네바식) 성찬식이었다.<sup>5</sup>

4) 피에르 리시에(Pierre Richier)는 1556년 프랑스 남극 식민지를 강화하기 위해 브라질로 원정을 떠난 필립 드 코르기에레(Philippe de Corguilleray)와 동행한 프랑스 칼빈주의 신학자였다. 그는 제네바에서 파견된 14명의 칼빈주의자로 구성된 파견대의 일원이었다.

5) “교회는 비록 다른 면에서는 많은 ‘결함’(vitii)—칼빈은 가장 강한 뉘앙스의 ‘악덕, 타락’의 의미인 ‘vitium’을 사용했고, 약한 뉘앙스의 ‘불완전함’(defectus)을 사용하지 않았다—이 보이더라도 어디서든 ‘성례’가 순수하게 시행되는 곳에 존재한다”(Calvin, 1960: IV.1.12). 바로 여기에 칼빈의 교회론에 내재된 ‘교회 표징’(symbolae ecclesiae)으로서의 역동성(dynamik)이 드러난다(Selderhuis, 2003: 195-214). 한편, 위그노인 프랑스 해군 제독 콜리니(Gaspard II de Coligny, 1519-1572)

당시 제네바는 넘쳐나는 위그노 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제네바 교회 당국(Geneva Consistoire)은 훈련과 재정 지원을 마친 두 명의 목사와 정착민들을 축복하며 파송했다. 그러나 제네바에서 온 이민자들은 낯선 땅에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일 뿐이었다. 그들은 정치적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한 채 깊은 소외감과 불안 속에 머물러야 했다. 무엇보다 개혁파 정착민들이 선택한 라틴 아메리카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강력한 지배 아래 있었다. 이곳은 1493년 교황 알렉산더 6세(Alexander VI)가 반포한 칙서 ‘인터 카에테라’(Inter Caetera)에 의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독점적 선교지로 규정된, 개신교도들에게는 금지된 땅이었기 때문이다.<sup>6</sup>

따라서 라틴 아메리카의 개신교도들은 종종 그들이 곧바로 발각되어 체포되고, 종교재판을 받았다. 고문을 당하면서 대다수는 형벌을 피하기 위해 주로 자신의 신앙을 철회했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킨 일부의 사람들은 화형에 처해졌다(Baez-Camargo, 1952: 135-136). 이러한 초기 개혁파 신자들의 이주 경험은 위협, 불안정성, 그리고 소외감의 연속이었다.

1555년 가톨릭 프랑스 왕실은 신세계 탐험 사업의 일환으로 600명의 시민을 보호할 섬 요새화 건설을 허락했다. 이 요새는 위그노이자 프랑스 해군 제독인 가스파르 드 콜리니의 이름을 따라 콜리니 요새라고 명명되었다.<sup>7</sup> 콜리니 요새는 최근 개신교로 개종한 부제독 니콜라 뒤랑 드 빌레가농(Nicolas Durand de Villegaignon, 1510-1571)의 지휘 하에 있었다. 빌레가농은 콜리니 제독을 설득해 위그노 난민들로 요새를 구성하게 했다<sup>8</sup>

이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는데, 그 이유는 유일한 두 명의 목격자에 의한 기록이 위그노들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그들은 1560년에 요새가 포르투갈의 군대에 의해 함락되었을 때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회고록은 존 폭스의 『순교사』(1563)에 수록되어 종교 논쟁의 도구로 사용되었기에 사료적 객관성에는 한계가 있다(McGrath, 1996: 385-397). 가톨릭

는 박해받는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위한 피난처를 마련하고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 1555년 브라질에, 1562년 미국 플로리다(Florida)에 탐험대를 파송했다. 그러나 플로리다를 식민지화하려던 그의 계획은 1565년 스페인 군대가 포트 캐롤라인(Fort Caroline)의 프랑스 정착촌을 공격하여 수많은 위그노 주민들을 학살함으로써 좌절되었다(Beaver, 1967: 14-20; Lestringant & Blair, 1995: 285-295).

6) 이 교황 칙서는 스페인의 가톨릭 군주인 페르디난드와 이사벨라에게 아조레스(Azores) 제도와 카보베르데(Cape Verde) 제도에서 서쪽으로 100리그(약 555km) 떨어진 지점을 지나 북극에서 남극까지 이어지는 선을 긋고, 그 서쪽과 남쪽에 있는 발견된 혹은 발견될 모든 땅을 할당했다(교황 칙서 원문 및 번역: Doctrine of Discovery Project, n.d.).

7) 콜리니(Coligny) 제독은 프랑스 종교전쟁(1562-1598) 당시 위그노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프랑스의 샤를 9세(Charles IX)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으나, 국왕의 어머니 카트린 드 메디치(Catherine de Medici)는 두 사람의 우정을 강력히 반대하여 1572년 8월 22일 콜리니 암살을 모의했다. 이 사건은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St. Bartholomew’s Day Massacre, 1572년 8월 24일)을 촉발시켰으며, 파리와 주변 지역에서 거의 1만 명 이상의 위그노가 학살당했다. 카트린 드 메디치는 이탈리아 왕국의 독살극과 암살 시도 속에서도 살아남은 노련한 정치인이었다(Knecht, 2014: 157-170).

8) 콜리니는 프랑스 위그노들을 위한 피난처로서 브라질에 식민지를 설립하기 위해 왕실의 지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그노 부대를 보충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파리 감옥을 살살이 뒤져야 했다(Good, 1909: 179-181).

릭 왕은 궁극적으로 신세계에 자신들의 식민지를 설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치적-경제적 이익 때문에 이 개신교 사업을 지원했던 것이다(Good, 1909: 179).

콜리니의 정착민들은 그들의 새로운 고향에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했다. 빌레가농의 서신에 의하면 그의 병사들과 위그노 난민들 모두 식량부족에 시달렸고 새로운 기후 속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는 위그노 난민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내심과 친절함을 지닌 민족”으로 묘사하며 그들이 대부분의 노동을 수행하여 “최고의 일꾼들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술회했다(Good, 1909: 179-180).

빌레가농은 위그노 정착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아 프랑스 왕 앙리 2세(Henri II)와 제네바의 위정자들에게 더 많은 개혁과 장인들(artisan)과 목사들을 콜리니 요새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서신들은 현존하지 않는다. 다만 제네바 교회의 기록에 따르면 제네바 교회는 브라질에 있는 빌레가농에게 칼빈의 서신을 전달하는 두 명의 목사, 즉 피에르 리시에(Pierre Richer=Richier)와 기욤 샤르피에르(Guillaume Charretier)를 추가로 파송했으며, 그 서신은 1557년 3월 7일에 도착했다. 이처럼 프랑스 가톨릭 왕실의 지원을 받아 콜리니 요새는 종교적 자유를 찾고,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개혁과 이민자(난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1557년 최초의 개혁파 예배와 성찬식이 신세계에서 뉴잉글랜드가 아닌 브라질에서 제네바의 교회법과 규제에 따라 거행되었다(Beaver, 1967: 14-20).

1557년 4월 배편으로 빌레가농의 서신과 두 명의 목사들이 보낸 서신이 칼빈의 제네바 교회에 전달되었다. 빌레가농은 개신교 목사들이 도착한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다. 그는 또한 원주민들로부터의 위협, 그 지역에서 생존하는데 겪는 육체적 고통, 일부 정착민들이 “겪는 고난 때문에 프랑스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자신도 “어려움에 다소 낙심했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그는 그 여행(순례)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위험에 굴복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천명했다(Good, 1909: 181). 빌레가농의 편지는 위그노 정착민들에 대한 관용을 보여주며 칼빈의 선교활동을 지지하는 언어로 끝맺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을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하시며 교회의 사역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연장하시기를 기원합니다.”(Good, 1909: 181).

그러나 빌레가농의 칼빈에 대한 지지는 상황적 실용주의에 근거한 그다지 뜨겁지 않은 것이었고, 루터파인 장 쿠엥타(Jean Cointat)가 제네바식 성찬식과 세례의식에 이의를 제기하자 빌레가농은 그를 지지하며 결국 제네바식 예배모범을 금지시켰다. 칼빈에게 그들이 제네바의 규범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을 어긴 것이다.<sup>9</sup> 위그노 콜리니 제독의 원래 의도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빌레가농의 개신교 신앙고백은 진실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콜리니 요새에 로마 가톨릭 교리를 강요했고 개혁파

예배를 금지했지만 은밀하게 진행했으며 결국 위그노들은 섬에서 쫓아냈다. 그들은 다시 한 번 난민이 된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요새에서 쫓겨나 브라질 본토로 추방된 위그노들은 자신들을 환대해 준 투피남바(Tupinamba)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의미의 선교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일례로 식민지 주민이었던 장 드레리는 미래의 선교사들을 위해 투피남바어 사전을 편찬하기도 했다(Parkman, 1865: 16-27). 그러나 또 안타깝게도 이들의 선교활동은 오래가지 못했다. 빌레가농이 그들을 이단이자 스파이라는 죄목으로 고발하여 체포한 후 사형을 선고했기 때문이었다.

체포된 이들 중 한 명은 신앙을 철회했다. 그리고 이들 중 피터 부르동(Peter Bourdon), 존 보르텔(John Bortel), 그리고 매튜 베르누이(Matthew Vernuil) 등 세 명은 처형당해 신세계에서 개신교 교리와 선교를 위해 목숨을 바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 일행 중 한 명인 존 볼스(John Boles)는 콜리니 요새 남쪽에 정착해 현지 부족들 사이에서 매우 성공적인 설교자가 되었으나 예수회(Jesuit)에 의해 체포되어 8년 동안 감금된 후 1567년에 화형에 처해졌다. 이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첫 번째 개신교 신앙재판(auto da fé)으로 기록되었다(Good, 1909: 185-186).

결국 콜리니 요새의 비극은 단순한 선교 실패의 서사가 아니다. 이는 칼빈의 난민신학이 제네바라는 지역적 경계를 넘어 신대륙으로까지 확장된 ‘초국적 교회연대’의 실재를 보여준다. 낯선 땅에서 쫓겨나고 순교하면서도 신앙의 공적 증언(witness)을 포기하지 않은 위그노들의 모습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뿌리 없는 나그네’임을 자각하게 하며, 국가와 국경을 초월하여 고통받는 타자를 환대해야 한다는 공공신학적 연대의 당위성을 확증해 준다.

## VI. 나가는 말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 가운데서 환대와 가난한 자들, 난민들 외국인들에 대한 돌봄을 은혜와 인간에게 있는 신성한 형상의 신학적 교리와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어떤 구절에서는 칼빈은

---

9) 빌레가농의 급격한 태도 변화와 변절은 단순한 변심이라기보다 신학적 갈등과 정치적 생존 본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첫째, 신학적 갈등이다. 성찬식 거행 방식(포도주에 물을 섞는 문제, 누룩 없는 빵 사용 등)을 두고 제네바 목사들과 소르본(Sorbonne) 출신의 장 쿠엥타(Jean Cointat)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빌레가농은 초기 개신교적 입장을 철회하고 가톨릭의 화체설(transubstantiation)과 예전으로 회귀했다. 둘째, 정치적 압박이다. 그는 프랑스 왕실의 강력한 후원자인 기즈 가문(House of Guise)의 로렌 추기경(Cardinal of Lorraine)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식민지 운영을 위해 왕실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했던 그는 본국 가톨릭 세력의 의심을 불식시키고자, 자신이 초청한 제네바 목사들을 “식민지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단자들”로 규정하여 축출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 했다(Lestringant, 1990: 187-202).

특히 종교적 난민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들 안에 있는 신성한 형상이 “가장 세심하게 주목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를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낫선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주님께서는 그에게 우리가 아는 표식-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가 경멸스럽고 가치가 없다고 강변한다면 주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의 형상을 빛나게 함으로써 그를 존귀하게 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말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를 우리 앞에 데려오셔서 그 안에서 우리들이 주님께 진 빛(부채)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 한 걸음이라도 내딛을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내줄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그가 가치 없을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욕하고 상처를 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기쁘게 하고, 또한 섬기는 것을 멈춰야만 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Calvin, 1960: III.7.6).

재론의 여지 없이 칼빈이 망명자였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망명자들을 옹호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칼빈을 중심 깊게 연구하려 애쓰는 한 사람으로서 보건대, 제네바에서 환대와 사회적 평등을 추구했던 사역은 브라질에서의 선교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워싱턴 주립대학교(WSU) 역사학 교수로서 종교개혁 시대와 현대의 ‘난민’(refugee) 문제에 천착해 온 제시 스포홀츠(Spohnholz, 2011 ; 2017 ; 2020: 147-148)<sup>10</sup>의 연구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서사는 초기 개혁주의 운동의 이주적이고 다국적인 특성을 잘 반영한다. 즉, 다문화적(multi-cultural)인 제네바는 시민권의 한계를 초극(超克)해 진리를 향한 보편적 투쟁의 일부였음을 시사해 준다.

제네바와 콜리니 요새의 위그노들에 관한 서사들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시의 중요한 질문을 상기시키고 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가장 작은 형제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제네바에서의 개혁파 시민(hosts)들의 환대와 콜리니 요새에 거주하고 있었던 개혁파 정주민들의 연약함, 위험, 그리고 고통은 오늘날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전세계적인 이주 문제에 대한 경험과 투쟁에 깊은 교훈을 주고 있다.

10) 스포홀츠(Jesse Spohnholz)는 오버만(Heiko Oberman)과 연결된 난민, 망명, 디아스포라 연구 관련 학자군(이른바 ‘제4차 학자군’)의 한 사람으로서, 이동하는 개혁주의 신앙과 난민 정체성의 유동성에 천착한 역사학자이다(두 학자의 교류에 관해서는 Heiko Oberman Papers, MS 576, Series 1: Correspondence, 1950-2001).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것은 움직임, 즉 여정이나 순례를 포함하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항상 고통을 수반한다. 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 자체로 판단할 때 수많은 방식으로 고통스럽고, 불안정하며, 불행하고, 어떤 면에서도 분명히 행복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재화로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고, 덧없고, 헛된 것이며, 여러 가지 혼란한 악에 의해 손상되어 있음을 배운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들은 이 삶에서 투쟁 외에 아무것도 바라거나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Calvin, 1960: III.9.1). 그러나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들을 위한 그의 고귀한 희생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선물은 공적(public)이고 정치적(political) 응답을 요구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들, 이민자(난민)들, 정치적 난민들이 고통받고 착취당하는 동안 방관하는 것은 분명한 죄악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침해하는 행위인 것이다. 우리들의 기독교적 의무는 자비의 사역을 통해 이러한 고통을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한 정치적 질서를 세워 이러한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다(Calvin, 1960: III.7.6).

개혁과 신학에서 ‘우상숭배’(idolatry)는 단순히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을 넘어, 피조물(국가, 인종, 국경, 이데올로기)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두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종교개혁 제2세대인 칼빈은 가톨릭에 대한 종교개혁을 “가톨릭 우상숭배(idolatry)에 대한 척결”로부터 기동했다.

자국 중심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를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우상숭배적 타협이다. 개혁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타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의 실정법이나 배타적 안보 논리를 하나님의 법(환대와 사랑)보다 우선시하는 그 어떤 것도 허용될 수 없다.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미국의 일부 보수적 복음주의 진영은 가혹한 이민 정책과 국경 장벽 건설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 침묵으로 공조해 왔다. 이는 취약한 난민들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신학적 배교 행위와 다름없다. 더불어 한국의 개혁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본의 논리와 타문화에 대한 배타성에 갇혀 이주민과 난민 문제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엄중한 경고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현대 교회의 도덕적·정치적 침묵주의는 칼빈의 신학적 유산에 비추어 볼 때 뼈아픈 회개와 심각한 재고가 요청된다.

21세기는 이미 ‘이주의 시대’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종교적 박해, 경제적 고통, 인종적 증오, 정치적 갈등 등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수많은 영혼과 몸의 거대한 이동을 초래하고 있다. 전 세계의 칼빈주의자, 개혁주의 신자들이 이러한 전례 없는 탈주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이주의 역사를 통해, 그리고 난민 문제를 기독교적 실천 관점에서 조망한 최근의 논의들

이봉근

---

(Groody, 2022: 238-243 ; Măcelaru, 2018: 69-76 ; Aspray, 2024: 386-403 ; Koh, 2024: 1-19)을 통해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 문헌

- ACLU (2024, April 12). "Sexual Abuse in Immigration Detention". *ACLU*. (<https://www.aclu.org/sexual-abuse-in-immigration-detention>)
- Aspray, B. (2024). Jesus was a Refugee: Unpacking the Theological Implications. *Modern Theology*, 40(2), 386-403.
- Backus, I. & Benedict, P. (Ed.) (2011). *Calvin and His Influence, 1509-2009*. Oxford University Press.
- Baez-Camargo, G. (1952). The Earliest Protestant Missionary Venture in Latin America. *Church History*, 21(2), 135-145.
- Beaver, P. (1967). The Genevan Mission to Brazil. *Reformed Journal*, 17, 14-20.
- Bouwsma, W. (1986). Calvin and the Renaissance Crisis of Knowledge. *Calvin Theological Journal*, 21(2), 189-203.
- Calvin, J. (1863-1900). Calvin Opera (CO). in Baum, Cunitz, & Reuss (Ed.) (1863-1900). *Corpus Reformatorum*. Schwetschke.
- Calvin, J. (1926-1962). *Ioannis Calvini Opera Selecta* (Vols. 1-5). Barth, P. & Niesel, W. (Ed.) Chr. Kaiser.
- Calvin, J. (1960).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nst.)*. McNeill, J. T. (Ed.) Trans. by Battles, F. L.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Calvin, J. (1992). *Sermons on II Samuel*. Trans. by Kelly, D. Banner of Truth.
- Calvin, J. (1994).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Vol. 12: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 and the First and Second Epistles of St. Peter*. Torrance, T. F. (Ed.) Eerdmans.
- Chalamet, C. (2013). John Calvin as a Humanist Reformer. *International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15(3), 289-308.
- Ganoczy, A. (1996). Calvin's Life and Work: Foundations of His Anti-clericalism. *Studies in Reformed Theology and History*, 3(1), 11-27.
- Gonzales, R. (2019, February 26). "Sexual Assault of Detained Migrant Children Reported in the Thousands Since 2015", *NPR*.
- Good, J. I. (1909). Calvin and the New World. *Journal of the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5(4), 179-186.

- Gordon, B. (1996). Calvin and the Swiss Reformed Churches. in Pettegree, A., Duke, A. & Lewis, G. (Eds.) (1996). *Calvinism in Europe, 1540-1620* (pp. 64-8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oody, D. G. (2022). Migration and refugees: A Christian Perspective. in Sachs, J. D., Sánchez Sorondo, M., Annett, A. & Thorson, J. (Ed.) (2022). *Ethics in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p. 238-243). Columbia University Press.
- Holder, R. W. (Ed.) (2020). *John Calvin in Contex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lt, M. P. (2020). International Calvinism. in Holder, R. W. (Ed.) (2020). *John Calvin in Context* (pp. 375-38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nnes, W. C. (1983). *Social Concern in Calvin's Geneva*. Pickwick Press.
- Kingdon, R. M. (1982). Calvinism and Social Welfare. *Calvin Theological Journal*, 17, 212-230.
- Kingdon, R. M. (1991). The Economic Behavior of Ministers in Geneva in the Middle of the Sixteenth Century. *Archiv für Reformationsgeschichte*, 50(1), 33-39.
- Kingdon, R. M. (1993). Calvinist Discipline in the Old World and the New. *Archive for Reformation History*, 84, 665-673.
- Knecht, R. J. (2014). *The French Civil Wars, 1562-1598*. Routledge.
- Koh, J. L. (2024). Immigration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The Challenge and Imperative of Racial Justice. *Political Theology*, 1-19.
- Léry, J. de. (1994). *Histoire d'un Voyage Faict en la Terre du Brésil*. Frank Lestringant.
- Lestringant, F. (1990). *Le Huguenot et le Sauvage: L'Amérique et la Controverse Coloniale, en France, au temps des Guerres de Religion (1555-1589)*. Aux Amateurs de Livres.
- Lestringant, F. & Blair, A. (1995). Geneva and America in the Renaissance: The Dream of the Huguenot Refuge, 1555-1600.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26(2), 285-295.
- Lindberg, C. (2010). *The European Reformations*. Wiley-Blackwell.
- Maag, K. (1995). *Seminary Or University?: The Genevan Academy and Reformed Higher Education, 1560-1620*. Scholar Press.
- Măcelaru, M. V. (2018). Christianity and the Refugee Crisis. *Transformation*, 35(2), 69-76.
- McGrath, J. (1996). Polemic and History in French Brazil, 1555-1560.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27(2), 385-397.
- McKee, E. A. (2007). The Character and Significance of John Calvin's Teaching on Social and Economic Issues. in Dommen, E. & Bratt, J. (Ed.) (2007). *John Calvin Rediscovered* (pp. 3-24).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Mottu-Weber, L. (1987). *Économie et Refuge à Genève au Siècle de la Réforme: la Draperie et la Soierie (1540-1630)*. Société d'Histoire et d'Archéologie de Genève.
- Naphy, W. G. (1995). Baptisms, Church Riots and Social Unrest in Calvin's Geneva.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26(1), 87-97.
- Naphy, W. G. (2003). Geneva: Hospitality and Xenophobia. in Naphy, W. G. (Ed.) (2003). *Calvin and the Consolidation of the Genevan Reformation* (pp. 101-143).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Naphy, W. G. (2011). Calvin's Church in Geneva: Constructed or Gathered? Local or Foreign? French or Swiss?. in Backus, I. & Benedict, P. (Ed.) (2011). *Calvin and His Influence, 1509-2009* (pp. 114-116). Oxford University Press.
- Nowell, C. E. (1949). The French in Sixteenth-Century Brazil. *The Americas*, 5(4), 381-393.
- Oberman, H. A. (1992). Europa Afflicta: The Reformation of the Refugees. *Archiv für Reformationsgeschichte*, 83, 91-111.
- Olson, J. E. (1989). *Calvin and Social Welfare: Deacons and the Bourse Française*. Susquehanna University Press.
- Paquin, R. (2000). Calvin and Theocracy in Geneva: Church and World in Ordered Tasks. *The Journal of the Faculty of Religious Studies*, 28, 91-113.
- Parkman, F. (1865). *Pioneers of France in the New World*. Little, Brown.
- Pompa, C. (2019, June 24). "Immigrant Kids Keep Dying in CBP Detention Centers, and DHS Won't Take Accountability", *ACLU*.
- Sachs, J. D., Sánchez Sorondo, M., Annett, A. & Thorson, J. (Ed.) (2022). *Ethics in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olumbia University Press.
- Schilling, H. (1983). Innovation through Migration: The Settlements of Calvinistic Netherlanders in 16th-17th-century Central and Western Europe. *Social History*, 16(31), 7-33.
- Selderhuis, H. J. (2003). Kirche im Theater: Die Dynamik der Ekklesiologie Calvins. in Ortiz, P. (Ed.) (2003). *Calvin im Kontext der Schweizer Reformation* (pp. 195-214). TVZ Theologischer Verlag.
- Spohnholz, J. (2011). *The Tactics of Toleration: A Refugee Community in the Age of Religious Wars*.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 Spohnholz, J. (20217). *The Convent of Wesel: The Event that Never was and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Spohnholz, J. (2020a). Refugees. in Holder, R. W. (Ed.) (2020). *John Calvin in Context* (pp. 145-154). Cambridge University Press.

Watt, I. M., Kingdon, R. M. & Lambert, T. A. (Ed.) (2000). *Register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Vol. I, 1542-1544*. Trans. by McDonald, W. Eerdmans & Meeter Center.

# 공공신학으로 조망한 칼빈의 난민신학 -이주성, 환대성, 초국적성, 그리고 교회연대성의 국제운동

## Calvin's Refugee Theology Viewed through the Lens of Public Theology: Migration, Hospitality, Transnationality, and the International Movement of Church Solidarity

이 봉 근 (칼빈대학교)

### 논문초록

본 연구는 16세기 종교개혁을 ‘난민들의 이동’으로 재해석하고, 오버만의 ‘고통당하는 유럽’(Europa Afflicta) 개념을 빌려 존 칼빈의 사역을 ‘난민 신학’(Refugee Theology)으로 규명한다. 연구는 두 가지 역사적 현장을 조망한다. 첫째, 16세기 제네바에서 칼빈은 난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접하며 ‘구빈원’과 ‘프랑스 기금’(Bourse française) 등 체계적 복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둘째, 1555년 브라질 ‘남극 프랑스’ 선교 사례를 통해 그의 신학이 신대륙까지 확장된 초국적 연합 운동이었음을 밝힌다. 결론적으로 칼빈이 보여준 환대와 정의의 정신이 오늘날 난민 위기와 반이민 정서(xenophobia)에 직면한 현대 교회에 주는 공공신학적 함의를 도출한다. 그에게 있어 난민 돌봄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신학적 당위이자 정치적 책임이었다.

주제어: 존 칼빈, 난민신학, 공공신학, 고통당하는 유럽, 환대